

논리로 이해하는 사도행전 (32)

‘사도행전 강해 32 (유익의 목사)’의 내용을 정리/보충한 것입니다.

19장[1] (19:1~) 성경은 주로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개역개정판 등을

19:1a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아볼로]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있는 **고린도**로 갔습니다. 성경 지식에 해박하고 언변이 뛰어났던 아볼로가 거기 머무는 동안, 그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부작용도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너무나 훌륭한 나머지 ‘아볼로파’가 생겨났는데, ‘바울파’ ‘베드로파’ 등 다른 파벌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이런 파벌이 생긴 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파벌이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바울] 한편 바울은 18장 23절에서 시작한 3차 선교 여행을 계속합니다.¹ 그는 지난 2차 선교여행 때 잠시 머물렀던 **에베소**에 다시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이곳에서 약 2년간 사역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장기간 사역한 것입니다. 그는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

¹ 18장 23절을 3차 선교여행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18:23 바울은 얼마동안 거기(안디옥)에 있다가, 그 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으나, 예외적으로 2차 여행 때는 고린도에서 1년 반 그리고 3차 여행 중에는 에베소에서 2년을 사역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된 것은, 2차 선교여행 기간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바울의 말씀을 더 듣기 원했던 교인들이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18:20 **그들(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

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21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런 약속을 하고 떠났던 에베소에 다시 돌아왔으니, 그가 에베소에 다시 돌아온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²

19:1b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2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너무 짧게 사역하고 떠났기 때문일까요? 에베소에 다시 도착했을 때, 거기서 만난 몇몇 제자들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²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무르며 고린도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는 고린도서에서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등으로 나누어 진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지만, 바울이 떠난 후 다른 경로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3절에 의하면, 이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3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3절에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할 때 그의 많은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그 흩어진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2절에 의하면 에베소 사람들은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도 성령을 몰랐다는 말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성령을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을 체험한 것은 모두 예수님을 만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 ① 엘리사벳(세례 요한의 어머니)과 마리아(예수님의 어머니)가 서로 만났을 때는, 아직 두 아기가 배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태중에 있던 요한이 역시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배속에서 뛰놀게 됩니다.

눅1: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배 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42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벧속에 있는 두 아기가 서로를 알아보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벧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 ②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그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요1:32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은 성령을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을 체험한 것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훗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부터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다'고 말한 것은 왜 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굳게 믿었다.
②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힌 후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 제자를 보내어 예수님께 묻는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³
③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답변을 하였고, 아마도

³ 마11:2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믿었을 것이다.

- ④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일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을 수 있다.
- ⑤ 세례 요한이 순교 당한 후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 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제자들이 에베소 사람들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다.
- ⑥ 세례 요한의 성령 체험은 항상 예수님과 관련되어 나타나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제자들은 성령마저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⑦ 따라서 본문에서의 에베소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는 알면서도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4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5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들이 받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는 복음의 전단계 (혹은 최초단계) 임에 분명하지만, 회개 만으로는 복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다른 여러 종교에도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세례는 성부-성자-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이 받은 세례는 ‘회개를 결단하는 세례’에 불과했던 것이지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가 아

니었기에,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게 됩니다.⁴

이들이 ‘다시 세례’ 받은 것을 재세례파(Anabaptist)의 세례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세례파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등장한 매우 급진적인 혁명가들인데, 이전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받은 세례가 잘못되었으니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재세례파’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시 거의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어릴 때 무조건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유아 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모의 신앙으로 받은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 ② 만일 성인이 된 후에 세례를 받았다 하라도, 자신의 믿음을 진실되게 고백하지 않고 단지 세례를 받아야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당시의 분위기에 의해서 받은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전에 받은 세례가 비록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정식 세례라 하더라도, 세례를 받는 사람이 준비 안된 상태로 받았으니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세례파가 주장하는 ‘다시 받는 세례’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오해하면, 마치 성부와 성령의 이름 없이 예수 이름 ‘만’으로 세례 받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면서 예수 이름만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리 없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을 알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에 성령도 몰랐던 것이므로, 아마도 이 본문에서는 ‘예수 이름’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받았다고 강조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정식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고백이 충분치 않아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의 제자들이 다시 세례 받은 이유는 다릅니다. 그들이 전에 받은 세례는 단순히 ‘회개의 세례’로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전에 받은 세례는 결코 완전한 세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의 각 번역본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아래와 같이 본문의 ‘의미만 전달’하며 번역하였습니다.

[새번역] 4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은 4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는 곧 예수’라고 강조하여 번역하였는데, 이 번역이 원문의 순서에 잘 맞는 번역입니다.

[개역개정] 4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당신들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요한이 결국 누구를 믿으라고 한지 아느냐? 그분은 바로 예수!’라고 하며 예수를 강조한 것입니다.

6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7 모두 열두 사람쯤 되었다.

오순절에 성령이 때릴 때와 비슷한 일이 에베소에서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단지 회개의 세례만 믿고 있을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8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9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방법은 ‘무조건 믿으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전도 방법은 ‘강론’이었습니다. ‘강론’이라는 한글 번역으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주로 일방적인 설교의 형태였을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그것은 엄연히 번역일 뿐입니다.⁵ 이것의 헬라어 원문은 ‘토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영어성경 NKJV은 이것을 reason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논리적으로 이치를 따져서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은 ‘논리적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⁵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διαλέγομαι*인데, 주로 ‘토론하다’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10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나 그 논리적 말씀에 굴복하여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 나갔다.

19장 6-7절이 오순절 성령 강림(행 3장)과 비슷한 사건이었다면, 11-12절은 베드로의 병고침(행 5장)과 매우 유사한 사건입니다.

행5:15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 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오순절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지도자로 하여 발생한 사건들이었고, 본문의 사건은 에베소에서 바울을 지도자로 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임을 확실히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바울이 아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몰랐을 때, 즉 회개의 세례만 알았을 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 오순

절 성령 강림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체험되어지고, 수많은 질병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강림과 치유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주된 전도 방법은 논리적 가르침이었지만, 결코 논리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논리적인 것’과 ‘논리를 초월하는 것’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사역이었습니다.

본 문서는 헤세드교회 홈페이지 <http://hsdch.org>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